녹용심포지엄과 12,1월의 질병관리

- 녹용심포지엄 참관기 및 동절기 질병관리 요령 -

유일준 수의사
유일동물병원장

• 2002년 12월 4일 양록산업혁명 횃불 점화

옛 어른들의 말씀에 "말을 타고 가다보면 마른 곳, 진 곳, 모래밭, 돌길, 소나기 오는 곳, 눈보라 치는 곳을 가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다. 현재 양록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올해가 마치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같은 해였을 것 같다. 불꺼진 터널 속에 갇힌 느낌을 받는 해였다. 녹용값은 바닥이고, 사슴값은 바닥을 더 내려가 지하에 묻혀 있고, 수요자 또한 엉터리 중탕업자, 수입녹용 취급자들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녹용제품의 신뢰마저도 쓰레기 더미 속에 함께 섞여져 버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양록인은 소수일 것이다. 이는 자신의 양심을 거울로 하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면 현재와 지난날이 진정 100% 티끌 없이 투명하였다고 자부할 양록인은 정말로 소수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다. 자 이제부터 양록인은 우리 스스로를 추스르고 단련하고 단결하고 정당한 주장에는 다소간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용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지난 12월 4일 제1회 녹용과학심포지엄에 참석했던 교수들의 수에서 극명한 모습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실제야 어쨌

든 간에 양록인에게 다소의 불리한 이야기라도 나오면 "저놈 죽어라"하는 분위기가 살아 있었기에 사슴관련 연구를 하면서도 양록인들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교수들이 대거 참석하였다는데서 확연히 드러났다. 사슴관련 연구 교수님들은 "양록업계에 깊숙이 관여했다가는 본의 아니게 망신을 당하거나 욕을 얻어먹고, 연구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했던 것이 과거의 일이다. 그러기에 2년 전 여름 진주에서 사슴관련 연구교수님들이 양록인들에게는 알리지도 아니하고 그분들만의 심포지엄을 가진 일도 있었다. 그러나 12월 4일의 심포지엄에서는 지금까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내용들이 발표될 수 있었다. 이는 사슴관련 연구자와 교수들이 용기를 내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양록업의 서광이 비치는 시점이 되었다.

2002년 12월 4일 충주에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농가들의 관심도 대단했다. 한국 역사상 양록관련 심포지엄에 350명이 참가한 역사가 없었다. 이는 양록산업과 연구자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파트너가 되었다는 징조다. 이날 참석한 분 중 60여명이 대학교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는 양록산업에도 혁명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병태 연구소장도 이번 심포지엄에 150명 정도가 참석하지 않을까 해서 잠을 못 이루었는데, 그보다 200여명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으니 그 숫자만으로도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 양록산업을 위해 몸을 바쳐도 후회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양록인은 2002년 12월 4일을 잊지 말자. 그리고 긍지를 갖도록 하자. 12월 4일을 양록의 날로 정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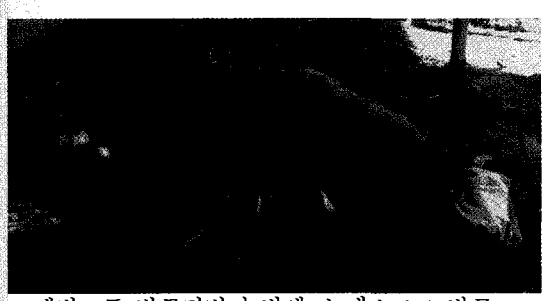
• 11월의 사슴진료

11월에는 엘크 숫사슴에서 급성 흉막폐렴, 발굽질병, 과도한 발정현상에서 기인된 폐사가 주를 이루었고, 그 외에 숫사슴끼리의 투쟁에 의한 부상과 폐사, 아나보린 주사에 의한 낙각현상 등이 진료의 대상이 되었다.

그 외에 미량물질 결핍현상도 작은 수이기는 하나 네마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레드디어에서는 투쟁에 의한 부상, 아나보린 주사에 의한 낙각현상이 종종 발견되었다. 발굽질병은 엘크에 비해 아주 작은 비율이었다. 꽃사슴에서는 숫사슴을 집단 사육하는데서 오는 싸움으로 발굽과 사지부상이 주를 이루는 병들이었다. 가끔은 과밀 사육에 의한 털 뜯어먹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특히 엘크 숫사슴에서는 어린 사슴부터 나이 먹은 사슴에서 급성 흉막폐렴이 발생하여 손쓸 사이도 없이 폐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산시의 어느 농가에서는 2일 사이에 7두가 폐사하는 예도 있었다. 급성 흉막폐렴은 손을 쓸 수 없지만, 흉막폐렴은 지속성 항생제(지속성 테라마이신, 페니실린, 타로콤프III)와 해열제, 소염제, 식욕촉진제를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 다만

마취를 통한 치료는 매우 위험하므로 몰이장이나 크러쉬를 이용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발굽질병은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를 막론하고 발정현상에서 유래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번식용(종록)으로 사용된 사슴에서 병세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생리적인 사료섭취량의 감소와 교배행동 그리고 소리지르기 등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발굽질병의



▲네발모두 발굽질병이 발생, 뉴캐스트로 발굽을 고정시켜 놓은 모습.

특징은 발굽에 심각한 염증이 발생된 후에야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어서 발굽질병은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할 때마다 마취를 해야하는 약점이 있다. "내 발 치료해 주시오"하고 아픈 발을 내밀어 주는 사슴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아픔을 치료해주려는 사람을 들이받거나 발로 차기만 하기 때문에 마취가 필수적이다. 발굽질병을 대부분의 양록인들은 "부제병"이라고 하지만 이는 약간 잘못된 표현일 것이다. 발굽질병은 철저히 치료를 해야하지 적당히 치료하면 해마다 재발하고 질병의 상태는 더욱 더 심각해진다. 심각한 발굽질병은 정성을 다해서 장기간 치료해도 다음해에 재발되기 일쑤인데 이는 발굽자체가 변형되어 발굽이 비정상으로 자라거나 발정기에 과도하게 움직여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다시 염증이 발생하거나 발가락뼈가 상해를 입은 데서 유래된다.

지난해부터는 제엽염이 매우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이 발견된다. 제엽염이란

▲발굽 질병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발굽이 시작되는 부분, 즉 털이 난 곳과 발굽이 시작되는 부분에 염증이 생겨 발굽이 시작되는 곳을 따라 염증이 시작되어 아래쪽으로 염증이 퍼져나가면서 염증이 심각하게 발생하며 때로는 발굽위쪽, 즉 발 위쪽으로 염증이 확산되어 발목이 부어오르고 심하게 되면 농이 차고 더 시간이 지나면 농양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 발목에 농양이 찼을 때 다행히 터져 나오면 치료가 쉬운 편이 되지만 터져 나오지 아니하면 발굽의 인대, 발굽 뼈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켜 치유불능이 되는 딱딱한 발목이 되어 -(발목이 돌덩이처럼 딱딱해 지는 것)- 버리면 치료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발목에 농양이 차면 수술로 농양을 제거한 후 철저히

소독하고 수술이후 염증부위에서 계속 생기는 농과 출혈, 삼출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농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배농관 설치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잘 알아야 하고 배농관을 통해 투약이 가능해야 한다)- 배농관은 실리콘 제제나 수액 set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가끔은 염증방어기전에 의해 주위의 임파절에 염증이 방생하기도 하므로 치료시 정밀한 관찰이 요망된다.

제엽염 치료에 쓰이는 약품은 니트로후라존, 썰파제가루, 페니실린(지속성)을 환부에 직접 뿌려주고 근육주사로 소염진통제, 해열제, 항생제를 써 주어야 한다. 2개 이상의 심각한 제엽염은 치료가 어려워 도태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제엽염이 발생되는 환경은 시멘트 콘크리트, 질퍽한 사육장, 과도한 발정현상에 의한 과산증이며 그 외에 발굽의 선천적인 이상, 소위 밀발이라 불리는 발굽과 구루병, 심각한 설사 등에서도 유래될 수 있다.

급성흉막폐렴(파스튜렐라)은 파스튜렐라 균에 폐가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급성흉막폐렴은 그 진행이 급성이어서 죽음의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는 "원인불명의 폐사"로 취급되기 일쑤이다. 급성흉막폐렴균은 번식과정에서 독소를 분비하게 되는데 이 독소가 심장을 공격하기 때문에 급사하게 되는 것이다. 급성흉막폐렴에 걸린 사슴을 부검해 보면 폐에 20㎠ 내외의 충혈이나 출혈이 관찰되고 그 외의 장기는 멀쩡한 것이 통례이다. 급성흉막폐렴은 예방이 최상인바 예방방법은 썰파디메틸피리이딘(상품명 썰멧)을 물에 타서 2~3회 투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약의 쓴맛이 매우 강하므로 설탕을 다량 섞어 주어야 한다. 급성흉막폐렴에 걸리면 저녁때까지 멀쩡하던 사슴이 아침에 죽어있거나, 아침에 일어서지 못하는게 통례이다. 그러나 급성기를 넘기면 바이트릴, 소염제, 썰파제, 해열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2일이나 3일 사이에 놀랄만큼 회복되기도 한다.

아나보린 -(발정기에 숫사슴이 순해지고, 사료섭취량이 늘어난다는 주사제)- 이 주사된 후 실제로 주사후 약 10일 전후에 사슴이 순해지고 식욕도 회복되었다는 농가가 많이 있다. 그런데 주사후 20~30일이 경과된 뒤에 한쪽 또는 두쪽 녹각이 낙각되는 현상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어떤 녀석은 정상 낙각된 사슴처럼 덤비면서도 철망이나 쇠파이프를 들이받지 아니하기도 하나, 어떤 녀석은 낙각이 되었는데도 다시 발정기의 숫사슴처럼 철망이나 쇠파이프를 들이받아 낙각된 부분이 엉망이 되는 녀석도 있다. 낙각후의 녹용성장의 정상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아나보린의 사용이 필수조건은 정확한 사용법이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겨울날씨가 온난하면 다행이지만 혹한이 오면 녹용이 동상에 걸려 성장이 중지되거나 정상적인 낙각철에도 낙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다. 아나보린이 장점도 있지만 사용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숙고함이 필요하다.

• 12월과 1월의 사슴질병

폐계통의 질병과 위장질병이 발생하거나 음수의 동결에 의한 탈수와 설사가 12월과 1월에 발생될 수 있다. 폐렴은 찬바람이 원인이 되어 면역력이 약한 사슴에서 발생될 수 있다. 찬바람이 원인인 경우 바람막이가 필요하며 얼어붙은 물이나 0℃에 가까운 물을 마시면 위장내에서 상존하면서 소화를 돕는 미생물이 사멸되어 소화기능의 저하로 인해 위장질환이 발생되어 고창증, 설사, 또는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소화제, 항생제를 써주면서 동시에 유산균 제제를 써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복부 농양으로 인해 아랫배가 불룩해진 암사슴

동절기에는 자칫 비타민과 미량광물질이 결핍되기 쉬운 때여서 이들의 투여가 권장되고 있다. 물이 얼어붙어 여러날 동안 물을 먹지 못할 때에는 따뜻이 데운 물에 약간의 소금을 첨가하여 별도 급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갈증과 소금부족으로 인해 분뇨로 오염된 운동장의 물을 먹게 되어 그로 인한 위장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 동절기에는 비타민과 미량광물질의 정기적인 투여가 권장되며 한발 더 나아가 유산균의 첨가는 위장질환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다. 가평지역에서 사슴을 기르는 김송희씨는 비타민, 미량광물질, 유산균을 적절히 첨가하여 건강한 사슴을 사육하는 분 중에 한 분이다. 언 땅은 발굽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사슴이 자주 눕는 장소에는 볏짚을 깔아주는 것도 사슴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12월, 1월, 2월에는 음수량의 감소로 인해 배뇨량의 감소가 이어지며 이는 신장(콩팥)에도 부담을 주어 요석증이 발생되거나 숫사슴에서 포피염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겨울철은 사슴의 음수량이 부족되지 않도록 관리함이 요구되며 요석증이나 포피염이 있는 사슴은 경구로(입으로) 암모니움 크로라이드를 설탕과 함께 먹는 물에 녹여 먹이고 항생제와 비타민 A, D, E 제제를 주사함이 요망된다.

2003년도에 바람직한 녹용생산을 위

해, 자록생산을 위해 겨울철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균형 잡힌 영양소와 조사료를 세심하게 급여해주면 녹용생산량도 우량할 것으로 믿어진다. 번식용 암사슴은 너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너무 마른 상태라면 곡물사료(배합사료)의 양을 늘려주고, 고급 조사료도 주면서 농후부산물인 콩잎, 볏짚, 고추대, 땅콩의 잎과 줄기를 급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때 비닐, 끈, 철사 등이 섞이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2002년에 출생한 사슴은 암수를 불문하고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충분히 주고 비타민, 미량광물질을 투여함이 필수사항이다. 이 시기에는 장래에 우수한 성록이 되도록 충분히 투자해야만 한다. 이는 필자의 경험으로 얻어진 결과이므로 강력히 추천한다. "새끼사슴은 잘 먹여줘야 커서 제값을 한다."고…

2003년도에는 양록인도 기죽 펴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렸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양록인 여러분 보다나은 2003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양록

<필자 연락처 : 011-423-5297>

마취기구 공급안내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회에서 마취기구를 공급중입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 취 급 품 목 ◇
• 마취기구 세트 • 주사기 • 바늘

신청전화 : 02)969-6600